



예거 르쿨트르의 새로운 타임피스,
마스터 히브리시 아티스티카 칼리버 945

그랑 컴플리케이션에 담긴

발레드주 별자리의 비밀

2022 년, 예거 르쿨트르는 셀레스티얼 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그랑 메종의 탁월한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새로운 타임피스를 선보입니다. 그랑 컴플리케이션 칼리버 945 를 재해석한 핑크 골드 소재의 마스터 히브리시 아티스티카 칼리버 945 갤럭시아와 화이트 골드 소재의 마스터 히브리시 아티스티카 칼리버 945 아토미움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두 타임피스 모두 그랑 메종의 예술적 창의성과 탁월한 장식 공예 그리고 천재적인 기술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5 피스 한정 제작되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됩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들은 밤하늘을 수놓은 별자리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이 사용하는 항성시를 완벽히 마스터한 뒤, 다양한 컴플리케이션이 정교하게 맞물려 손목 위에 천문학적 현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특별한 칼리버를 탄생시켰습니다. 2010 년 처음 공개되었을 당시 스카이 차트와 셀레스티얼 돔 디스플레이, 황도대 달력 그리고 미닛 리피터가 결합된 형태였던 칼리버 945 에 예거 르쿨트르의 코스모투르비용인 셀레스티얼 플라잉 투르비용을 더해 한층 더 발전된 기능을 선보입니다.

- 새로운 "아토미움" 및 "갤럭시아" 다이얼은 처음으로 예거 르쿨트르의 진귀한 예술 공예 기술과 함께 그리자이유 에나멜 기법을 활용하여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 진귀한 수공예™) 아틀리에의 기술을 선보입니다.
- 코스모투르비용은 1 항성일에 다이얼을 한 번 회전하고 발레드주에서 바라본 밤하늘과 매 순간 변화하는 북반구의 별자리 위치를 보여줍니다.
- 미닛 리피터의 탁월한 차임으로 셀레스티얼 타임키퍼를 완성합니다.



환상적인 디스플레이

타임피스에는 숫자를 활용하여 그랑 메종과 우주의 유대감을 암시적으로 드러냈던 기존의 클래식 캘린더 다이얼과는 달리, 다이얼에 예거 르쿨트르에 영감을 준 우주와 그랑 메종의 오랜 인연을 담아, 손목 위에 철학적 메시지가 반영된 천문학적 타임키퍼를 펼쳐냅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위치메이커들은 시간 측정의 천문학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별에 기초해 항성시의 흐름을 표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했습니다. 다이얼 중앙에 자리잡은 셀레스티얼 돔 디스플레이는 위도 46 도에 해당하는 예거 르쿨트르의 보금자리인 발레드주에서 바라본 밤하늘과 매 순간 변화하는 북반구의 별자리 위치를 보여줍니다.

천체의 모습이 담긴 코스모투르비용은 제어 시스템이라는 본연의 기술적 가치 외에도 항성일 하루 동안 시계 반대 방향으로 1 번 회전하며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는 놀라운 장관을 펼쳐냅니다. 23 시간 56 분 4.1 초 길이의 항성일은 원거리의 움직이지 않는 별을 기준으로 지구가 1 번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하지만, 현재 사용 중인 24 시간 단위의 태양일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의 궤도를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다이얼 테두리에 장식된 태양 모티프의 골드 포인트는 시계 설정에 필요한 조디악 캘린더의 달 및 24 시간 단위의 태양시를 가리키며, 도피네 핸즈는 다이얼의 플랜지에 위치한 두 개의 동심원 링에 표시된 12 시간 주기의 상용시 및 분을 알려줍니다.

진귀한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

새롭게 선보이는 마스터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갤럭시아와 마스터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아토미움은 특별한 무브먼트를 포함한 컴플리케이션 기술과 참신하고 예술적인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의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 진귀한 수공예™) 아틀리에에서 숙련된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채색하고 다양한 층으로 선보이는 다이얼은 아름다운 천체 테마를 강조해주는 동시에 코스모투르비용의 유려한 원무를 보여줍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그랑 메종의 탁월한 장인 정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리자이유 에나멜 기법을 활용해 별자리 지도를 완성합니다. 16 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된 회화 스타일의 그리자이유 에나멜은 하프톤과 음영이 조화를 이루어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입체적인 키아로스쿠로 효과(chiaroscuro)를 연출합니다. 에나멜 장인은 가장 먼저 전통적으로 블루 또는 블랙 컬러를 띄는 어두운 색조의 배경을 완성한 뒤, 여러 차례 에나멜을 덧바르고 가열하는 과정을 반복해가며 컬러의 깊이와 강도를 조절합니다. 그다음에는 섬세한 브러시로 이미지에 화이트 에나멜을 칠하고 다시 가열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에나멜이 두꺼워지면 컬러가 밝아지기 때문에 채색 과정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그리자이유 기법 특유의 섬세하면서도 깊이가 느껴지는 매혹적인 작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랑 메종은 극소수의 장인들만 구현할 수 있는 그리자이유 기법을 통해 마스터 히브리시 아티스티카 칼리버 945 의 다이얼에 밤하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가만히 밤하늘을 바라보면 머리 위에 별을 빼곡히 채운 돔을 띄워 놓은 것만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이얼도 코스모투르비용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돔형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돔의 테두리와 투르비용 아래에 보이는 다이얼의 가장 깊은 층은 전사 처리된 화이트 컬러의 달 이름 및 투르비용 초와 함께 오팔린에 반투명 래커를 장식한 미드나잇 블루 또는 블랙 컬러의 디스크(각각 화이트 골드 및 핑크 골드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돔은 각기 다른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갤럭시아"의 블랙 다이얼에는 골드로 만든 돔의 외부 및 내부에 셀레스티얼 디스크가 장착되었으며, 행성을 연상시키는 그리자이유 에나멜과 에나멜 위에 전사 처리된 별자리 지도/별자리 이름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아토미움"은 돔의 외부 구조를 형성하는 섬세한 실버 컬러의 메탈 세공 장식에서 영감을 받아 이름지어졌으며, 선으로 이어진 별자리와 같은 모습을 띕니다. 그 안에 자리 잡은 돔형 셀레스티얼 디스크에는 흡사 우주를 연상시키는 미드나잇 블루 컬러의 그리자이유 에나멜과 전사 처리된 별자리 지도를 장식했습니다

"갤럭시아"와 "아토미움" 다이얼은 태양시를 표시하는 디스크를 갖춘 세 가지 동심원 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24 시간을 표시하는 내부 링과 분을 알려주는 외부 링은 오팔린 마감 처리되며, 그 사이에 놓인 아워 링은 수공 기요세 위에 에나멜을 장식하고 애플리케 인덱스를 더했습니다.



마스터 그랑 트레이디션 케이스는 예술 작품과도 같은 다이얼 및 정교하게 맞물려 움직이는 기계식 메커니즘의 완벽한 조화가 돋보입니다. 80개가 넘는 부품으로 구성된 오목한 베젤은 러그의 넓은 베벨과 대조를 이룹니다. 움푹 들어간 러그가 역동적인 긴장감을 선사하는 반면, 테이퍼드 처리된 리피터 슬라이드는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는 케이스 측면과 조화를 이룹니다. 마이크로블라스팅과 폴리싱, 새틴 브러싱 처리된 다양한 질감이 빛의 유희를 극대화하며 디테일을 강조합니다.

별자리를 담은 차임 시계

타임피스는 천문학적 컴플리케이션에 워치메이커가 마스터해야 할 모든 시계학적 컴플리케이션 중에서도 특히 까다롭고 도전적인 기능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닛 리피터를 결합함으로써, 예거 르쿨트르의 차임 워치 전문 기술을 한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미닛 리피터의 기술적 어려움은 핸즈가 가리키는 정확한 시간을 완벽하게 프로그래밍된 일련의 타종으로 전환하는 정교한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기 다른 음을 사용하여 1시간, 15분, 1분 단위로 시간을 알려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예술적 측면에서도 소형화된 악기라는 명성을 걸맞게 깔끔하고 선명하게 조화를 이룬 차임 사운드를 재생해야 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이상적인 사운드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크리스탈 공, 트레뷰쉐 해머, 무음 거버너 등과 같은 몇 가지 특허받은 혁신 기술을 개발했으며, 칼리버 945의 미닛 리피터 메커니즘에 그랑 메종의 혁신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셀레스티얼 타임키퍼를 완벽히 보완하는 특별한 사운드를 완성합니다.

모든 면에서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칼리버 945 타임피스는 천문학적 시계에 대한 예거 르쿨트르의 변함없는 전문성을 비롯하여, 혁신을 추구하는 열정과 전통 계승 그리고 예술과 기계 기술의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그랑 메종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상세 정보

마스터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칼리버 945 갤럭시아

마스터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칼리버 945 아토미움

케이스: 마이크로블라스팅, 새틴 및 폴리싱 마감 처리된 핑크 골드 또는 화이트 골드, 사파이어 케이스백

크기: 45mm x 16.05mm



칼리버: 기계식 매뉴얼,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945

진동 수: 28,800 회

기능: 시/분, 달, 24 시간 인디케이션, 항성시를 표시하는 코스모투르비용, 매 순간 변하는 북반구의 별자리 지도가 장식된 셀레스티얼 디스크, 미닛 리피터, 조디악 캘린더

파워 리저브: 40 시간

다이얼: 그리자유 에나멜 처리된 블랙 다이얼(핑크 골드 케이스) 또는 실버 레이저 용접 구조의 블루 다이얼(화이트 골드 케이스)

방수: 5 바(bar)

스트랩: 악어 가죽

제품 번호:

Q5262470 - 핑크 골드 버전 - 5 피스 한정 제작

Q5263481 - 화이트 골드 버전 - 5 피스 한정 제작

STELLAR ODYSSEY 소개

2022 년 예거 르쿨트르는 인류의 시간 측정 방식의 근원에 있는 천문학적 현상에 경의를 표합니다. 매뉴팩처 초기부터 천문학적 기능은 단순한 형태의 문페이스부터 매우 복잡한 퍼페추얼 캘린더, 군시차, 스카이 차트, 달의 교점 주기와 근점 주기에 이르기까지 예거 르쿨트르의 정교한 시계 컬렉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태양, 달, 항성이라는 세 가지 시간 측정법을 모두 마스터한 그랑 메종은 천체 현상을 나타내거나 예측까지 하는, 가장 진보되고 정확한 메커니즘을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올해 예거 르쿨트르는 물입형 전시, 비주얼 아티스트 및 믹솔로지스트(mixologist)와의 콜라보레이션, 천체를 주제로 한 아틀리에 앙투안의 매혹적인 디스커버리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테마 이벤트 시리즈, 스텔라 오디세이(Stellar Odyssey)를 선보입니다. 스텔라 오디세이를 통해 손목 위의 경이로운 마이크로 메커니즘으로 재해석된 우주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jaeger-lecoultre.com